

'씨종자' · '3천배 유세' 도 안먹혔다

호남 중진 박지원 · 천정배 · 박주선 등

'文風'에 신인들에 참패...정치 일선 퇴장

설마 했으나 결과는 참담했다. 호남에서 4·15총선은 야당 중진 의원들에게는 무덤으로 판명났다. 3000배 유세에 나선 천정배, 씨종자론을 강조한 박지원, 이낙연 마케팅 김동철, 오희이 박주선 의원 등 호남의 유력 정치인들이 정치 일선에서 퇴장했다.

이번 총선 개표 결과, 광주·전남의 야당 중진 의원들은 '문재인 바람', 이른바 '문풍'을 앞세운 정치신인들에게 모두 패배했다. 호남 최다선인 7선에 도전했던 광주 서구를 천정배 민생당 후보는 선거 막판 지지를 호소하기 위해 거리에서 3000배 유세에 돌입했다. 그는 지역구 주요 도로에서 매일 3000배를 하며 호남 대통령을 만들지 못하면 정계 은퇴하겠다고 배수진을 쳤다.

하지만 유권자들의 마음을 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개표 결과 양향자 75.83% 대 천정배 19.49%의 참패였다. 목포에서 5선에 도전한 박지원

민생당 후보는 자신이 청와대 비서실장 시절 행정관이던 김원이 민주당 후보로부터 일격을 당했다.

전국구원의원으로 국회에 입성한 그는 목포에서 내리 3선을 하며 민주당과 민주통합당, 국민의당을 오가며 원내대표와 당 대표를 역임하면서 호남 정치인들의 만행으로 자리잡았다. 또한 77세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정치 9단, 청문회 9관왕, TV라디오 스타로 불리며 광폭 행보를 벌여왔으나 거센 문풍과 세대교체론에 발목을 잡혔다.

그는 "더 많은 국가예산과 국책사업을 가져와야 하고 '전남 대통령'도 만들어야 하는 일을 초선 국회의원들이 해 낼 수 있겠냐"며 "하나 남은 저 박지원만큼은 4기 진보정권의 호남 정치를 위해서라도 '씨종자'로 살려줘야 하지 않겠느냐"고 눈물로 지지를 호소했다.

더욱이 선거 막판 여당 유력인사들이 순천대 의대 유치 정책협

약을 하면서 상대 후보인 김원이 후보에게 약재로 작용하면서 조심스레 슬리도 점쳤다. 그러나 투표가 끝난 후 출구조사 결과 10%p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고 실제 개표에서도 11.42%p 차이로 석패했다.

광주 광산갑 김동철 민생당 후보 역시 여당의 대권후보인 이낙연 전 총리와 친분을 앞세워 '호남대통령 만들기'로 승부수를 걸었다.

그는 선거사무실 외벽 현수막에 이낙연 전 총리와 함께 한 사진과 함께 '뉴 DJ시대 개막' '50년 막역지기'라는 문구까지 내걸면서 이낙연 마케팅에 열을 올렸다.

이 선거운동이 어느 정도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자, 얼마 후에는 선거사무실 외벽 현수막 바탕색을 민생당의 '녹색'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상징하는 '파란색'으로 바꿨다.

김 후보 측은 "광주지역 민주당 후보로 나선 분들이 당선되면 대다수가 초선으로, 이들이 당내 계파싸움에서 목소리를 내고 호남 대통령을 응원하기가 쉽지 않다"며 "비록 야당이지만 민생당 중진들이 당선돼 민주당의 보완재로서 호남의 역할을 해줘야 이낙연 전 총리가 대권으로 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는 개표 결과 13.33%를 얻는 데 그치며 5선 도전에 실패했다.

'오희이'와 '불사조'란 별명을 가진 광주동남을 박주선 민생당 후보도 이번 총선에서는 속수 무책이었다.

그는 공천에서 탈락하면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되는 등 4선을 역임하면서 '오희이'라 불리며 정치를 하면서 4번 구속돼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진기록을 세워 '불사조'란 별칭이 붙었다.

박 후보는 이번 총선을 앞두고도 당 공천관리위원회 심사에서 컷오프됐다가 최고위에서 재심을 요구하며 반려하는 진통 끝에 공천장을 거머쥐었다. 하지만 최종 본선 결과는 10.1%의 득표율에 그치며 지역구에서 3위의 초라한 성적을 받았다.

지역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유권자들의 선택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 지역을 대표하는 정치인들이 일제히 사라진다는 점에서는 씁쓸한 뒷맛이 남는다"며 "이번에 새로 국회에 입문한 정치인들이 지역을 넘어 중앙 정치를 주무르는 대표 정치인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윤호 기자



4.15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광주지역 당선인들과 민주당 차세대단체장, 시구의원이 16일 광주시청에서 열린 합동 기자회견이 끝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민주당 광주 당선인들 "시민의 안전과 민생을 책임지겠다"

21대 총선에서 승리한 더불어민주당 광주지역 당선인들은 16일 "광주시민의 안전과 민생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송갑석 광주 서구갑 당선인 등 8명은 이날 광주시청 1층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시민의 선택을 무겁게 받들어 더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당선인들은 "2020년 우리는 코로나19라는 거대한 재난에 직면했다"며 "국민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고의 가치로 선언한 문재인 정부, 그 문재인 정부와 함께 할 유일한 정당, 민주당에 힘을 모아주세요"고 평가했다.

이들은 "광주시민의 선택은 어떠한 재난에도 끄떡없는 안전한 나라, 튼튼하고 강한 경제를 만들라는 엄중한 요구였다"며 "문재인 정부와 함께 코로나19라는 거대한

재난을 조속히 극복하고 광주의 더 큰 발전을 가져오라는 열망이 있다"고 민심을 분석했다.

어제와 내일을 잇는 정의로운 미래도시 'ACE광주',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인 올해를 역사로 바로 세우고 광주정신을 세계로 알리는 원년으로 삼겠다는 약속도 내놨다.

AI 인공지능 중심도시, 사람이 모이고 활기가 넘치는 문화도시, 글로벌 에너지 허브도시를 광주의 미래로 만들겠다는 공약도 거듭 확인했다. 광주형 일자리의 얽힌 매듭을 풀고 코로나19 완전 종식을 위한 총력과 광주 사상 최대 국제확보를 위해 뛰겠다고 다짐했다.

당선인들은 "4년 전 광주 전석 패배의 의미, 오늘의 지지와 격려를 잊지 않겠다"며 "광주 정신, 개혁을 완수하라는 촛불의 열망을 잊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전남 당선인들

"국난 떨쳐내고 더 나은 미래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10석을 모두 거머쥔 더불어민주당 전남지역 당선인들은 1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국난을 떨쳐내고 전남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원이(목포)·주철현(여수갑)·김희재(여수을)·소병철(순천·광양·곡성·구례갑)·서동용(순천·광양·곡성·구례을)·신정훈(나주·화순)·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김승남(고흥·보성·장흥·강진)·윤재갑(해남·완도·진산구)과 1~2대 광주시의원을 지낸 고(故) 김재균 전 의원(18대 북을) 2명뿐이었다.

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당선인들은 "코로나19라는 국난 속에서 치러진 이번 총선에서 호남의 선택은 대통령직의 정치,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라는 준엄한 명령이었다"며 "개월 즉시 코로나19 극복과 경제회복을 위해 총력을 쏟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고 국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총선으로 확인된 민심을 받들어 더욱 낮은 자세로 진정 국민이 주인인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당원·도민과 함께 전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윤호 기자

광주시의원 3명 체급 올려 국회 입성...조오섭 · 이형석 · 강은미

18대 이후 12년 만에 금배지 총 5명 여의도로



광주시의원 출신으로 21대 총선에서 나란히 국회에 입성한 3인방.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광주 북구를 당선인, 조오섭 광주 북구갑 당선인, 정의당 강은미 비례대표

21대 총선에서 광주시의원 출신 3명이 국회에 입성했다. 광주시의

원이 금배지를 단 것은 18대 총선 이후 12년만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광주에서 출마한 조오섭(북갑)·이형석(북을) 후보가 당선됐다.

6~7대 광주시의원을 지낸 조오섭 후보는 57.79%의 득표율로 김경진 무소속 후보(37.6%)를 누르고 초선 국회의원이 됐다. 전남 담양 출신으로 광주 동신고, 전남대 신문방송학과에 입학해 학생운동에 참여한 조 후보는 문재인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대변인을 역임했다.

이형석 후보는 78.82%의 득표율로 최경환 민생당 후보(11.12%)를 크게 앞서며 국회의원의 꿈을 이뤘다. 광주은행 노조위원장 출신으로 3대 광주시의회에 비례대표

로 진출한 뒤 2002년부터 2004년까지 광주시의회 의장을 지냈다. 광주시 경제부시장과 당 최고위원도 역임했다.

정의당 비례대표 추천 3순위인 강은미 후보도 당선됐다.

강 후보는 2010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노동당 후보로 광주시의원 선거(서구4선거구)에 출마해 비(非)민주당 후보로는 유일하게 지역구에서 당선됐다. 이후 국회의원 선거에도 도전장을 내밀었지만 잇달아 고배를 마셨다.

역대 광주시의원 중 국회의원에 당선된 정치인은 1~3대 광주시의원을 지낸 전갑길 전 의원(16대 광산구)과 1~2대 광주시의원을 지낸 고(故) 김재균 전 의원(18대 북을) 2명뿐이었다.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 062) 971-7400
 광고 직통 224-5800
 팩 스 222-5547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